

HRI 한반도 평화지수

3분기 한반도 평화지수 개선 조짐

2010. 11

목 차

■ 3분기 한반도 평화지수 개선 조짐

I. 2010-3분기 HRI 한반도 평화지수 조사 결과	1
II. 남북 관계 현안 설문 조사 결과	7
< 부록 1 > HRI 한반도 평화지수 개요	12
< 부록 2 > 교류지수 주요 변수	13
< 부록 3 > 남북 관계 전문가 설문 조사	14

Executive Summary

□ 3분기 한반도 평화지수 개선 조짐

(종합 평가) 2010년 3분기 HRI 한반도 평화지수를 산정한 결과, 남북 관계는 지난 분기보다 다소 호전되었으며, 2009년 4분기 이후 처음으로 상승세를 나타냈다. 3분기 HRI 한반도 평화지수는 전기대비 7.5p 상승한 30.1을 기록함으로써 천안함 사건으로 고조되었던 남북간 긴장이 다소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3분기의 기대지수도 지난 분기에 비해 큰 폭으로 상승함으로써 전문가들은 4분기 남북 관계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기대지수는 3분기 평화지수보다 11.9p 높은 42.0을 기록하여 남북 관계는 3분기의 '긴장 고조 상태'에서 '협력과 대립의 공존 상태'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주요 특징) 첫째, 전문가평가지수와 기대지수는 큰 폭으로 상승한 반면 실적에 기초한 정량분석지수는 감소했다. 특히, 2009년 3분기 이후 연속 감소세를 보였던 전문가평가지수는 지난 분기 10.9에서 30.4로 큰 폭의 상승세로 반전한 반면 정량분석지수는 34.4에서 29.8로 하락했다. 이는 천안함 사건 이후 시간이 흐르면서 남북 관계에 대한 전문가들의 인식이 크게 호전된 반면, 객관적 실적치는 여전히 부진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이산가족상봉 성사 및 G20 정상회담 이후 남북 관계가 개선될 것으로 전문가들이 기대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둘째, 남북 간의 경제 및 사회·문화·인도적 관계는 정치·군사적 관계보다 더 악화되었다. 정량분석지수중에서 정치·군사적 관계를 나타내는 이벤트지수는 지난 분기와 비슷한 34.9를 기록하여 남북 관계가 여전히 천안함의 영향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남북 교류실적에 기초한 교류지수는 24.6로 지난 분기보다 10.8p 크게 하락함으로써 핵실험이 있었던 2009년 2분기 수준으로 악화되었음을 보여준다. 셋째, 전문가 평가에 있어서 보수적 성향의 전문가들이 진보적 성향의 전문가들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보수적 성향의 전문가평가지수는 33.6을 기록하여 진보적 성향의 29.4보다 다소 크게 나타났다. 이는 보수적 성향의 전문가들이 천안함 사건 이후 대북 정책과 한미 공조 체제 강화 등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반면, 진보적 성향의 전문가들은 대북 정책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남북 관계 현안 및 북한 후계체제 전망) 전문가들은 전반적으로 남북 관계에 있어서 보다 유연한 접근을 주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수의 전문가(71.0%)들은 정부가 천안함 사건 해결과 별도로 6자회담 재개를 추진하는 투트랙 접근을 추진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또한 대북 지원에 있어서 민간 차원의 대북 쌀지원 확대(92.8%)는 물론 정부 차원에서도 쌀지원을 지속해야 한다는 응답이 68.1%로 다수를 차지하였다. 금강산 관광 재개에 대한 설문에서도 관광을 우선 재개한 후 재발방지조치 등을 협의해야 한다(54.4%)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또한 북한 후계체제 안착시 현재의 정책 기조가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북한의 개혁·개방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응답하였다. 전문가들의 응답 가운데 북한의 후계체제 안착시 개혁·개방을 확대할 것이란 전망(46.4%)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대외적으로는 유화적인 정책을 취할 것이란 전망(33.3%)이 강경한 입장(26.1%)보다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1. 2010-3분기 HRI 한반도 평화지수 조사 결과

○ (종합 평가) 3분기 한반도 평화지수 조사 결과, 남북 관계는 지난 분기보다 다소 호전되었으며 2009년 4분기 이후 처음으로 상승세를 나타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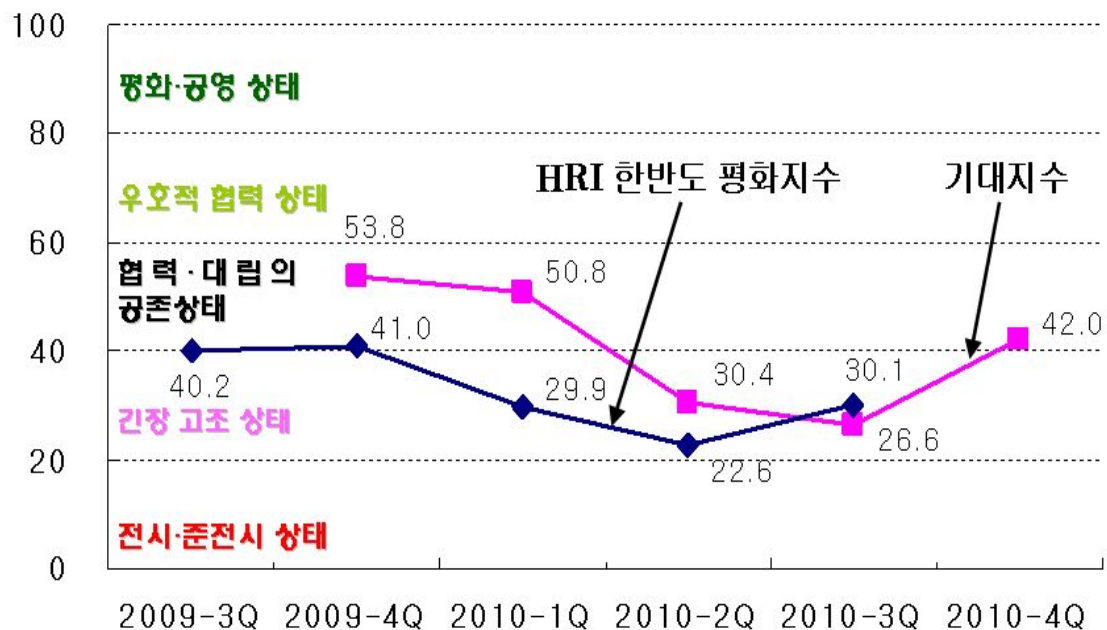
- 3분기 HRI 한반도 평화지수는 30.1을 기록하여 고조되었던 남북간 긴장상태가 다소 완화된 것으로 나타남

· 지난 분기 22.6을 기록했던 한반도 평화지수는 전기대비 7.5p 상승한 30.1을 나타냄으로써 2009년 4분기 이후 처음으로 상승세로 돌아섬

- 기대지수도 지난 분기에 비해 큰 폭으로 상승함으로써 전문가들의 4분기 남북 관계에 대한 전망은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남

· 4분기 기대지수는 42.0으로 나타나 남북 관계는 3분기의 '긴장 고조 상태'에서 '협력과 대립의 공존 상태'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

< 2009~2010 HRI 한반도 평화지수의 추이 >



○ (특징 분석) 전문가평가지수와 기대지수는 큰 폭으로 상승한 반면, 실적에 기초한 정량분석지수는 소폭 감소

- 3분기 전문가평가지수는 30.4, 정량분석지수는 29.8을 기록하여 남북 관계에 대한 주관적 평가와 객관적 평가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남
 - 지난 분기 10.9에 불과했던 전문가평가지수가 약 20p 정도 크게 상승한 반면, 34.4를 기록했던 정량분석지수는 소폭 하락하였기 때문임
- 2009년 3분기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나타냈던 전문가평가지수와 기대지수가 처음으로 상승세로 반전
 - 이는 남북 관계에 대한 전문가들의 주관적 평가와 전망이 지난 분기 부정적이던 데서 긍정적으로 전환되었음을 보여줌
 - 그러나 HRI 한반도 평화지수는 50p에 훨씬 못 미치는 30.1을 기록함으로써 남북 관계는 여전히 부진한 것으로 평가

< 2009~2010 HRI 한반도 평화지수 조사 결과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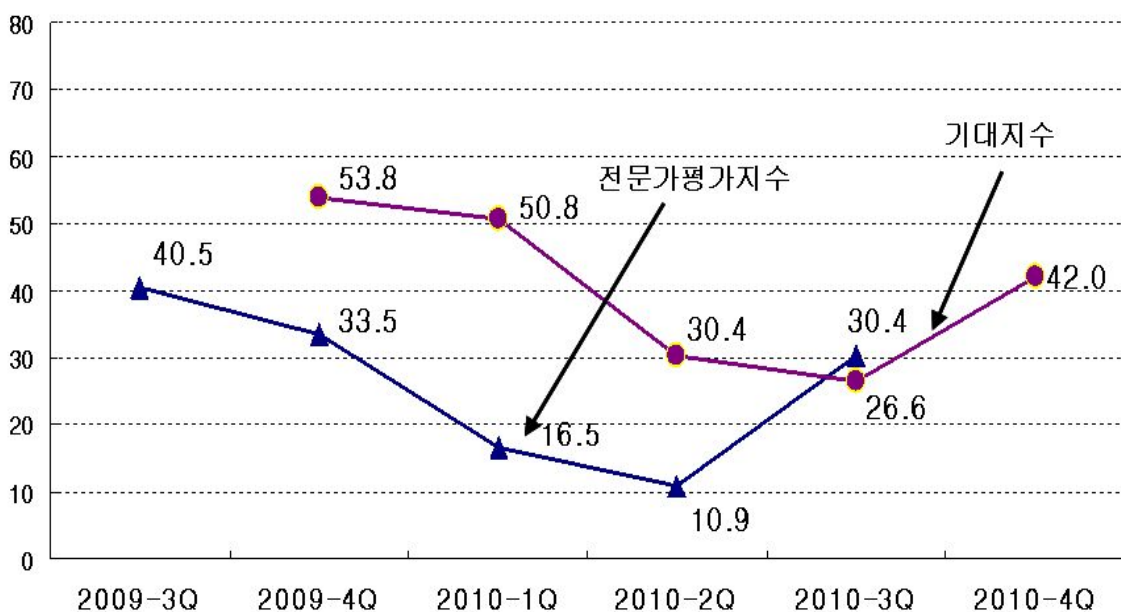
구분	HRI 한반도 평화지수				기대지수	
	전문가 평가지수	정량분석지수		교류지수		
'10-3분기	30.1 (▲7.5)	30.4 (▲19.5)	29.8 (▽4.6)	34.9 (▲1.6)	24.6 (▽10.8)	42.0 (▲15.4)
'10-2분기	22.6 (▽7.3)	10.9 (▽5.6)	34.4 (▽8.9)	33.3 (▽9.5)	35.4 (▽8.4)	26.6 (▽3.8)
'10-1분기	29.9 (▽11.1)	16.5 (▽17.0)	43.3 (▽5.2)	42.8 (▽6.5)	43.8 (▽3.9)	30.4 (▽20.4)
'09-4분기	41.0 (▲0.8)	33.5 (▽7.0)	48.5 (▲8.7)	49.3 (▲1.2)	47.7 (▲16.2)	50.8 (▽3.0)
'09-3분기	40.2	40.5	39.8	48.1	31.5	53.8

○ (항목별 평가) 전문가평가지수가 큰 폭 상승하여 주관적 지표가 객관적 지표인 정량분석지수를 상회

(1) 전문가평가지수 (2010년 2분기 : 10.9 → 2010년 3분기 : 30.4)

- 총 70명의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들의 남북 관계에 대한 평가는 지난 분기에 비해 크게 호전되었음
- 3분기 전문가평가지수는 전기대비 19.5p 상승한 30.4를 기록함으로써 2009년 4분기 수준으로 회복
- 이는 천안함 사건 이후 시간이 흐르면서 남북 간에 고조되었던 긴장이 완화되었고, 일련의 남북 대화 개최 및 이산가족 상봉 합의, 개성공단 유지 등이 전문가들의 긍정적인 평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됨
- 기대지수도 42.0을 기록하여 전문가들은 4분기의 남북 관계가 현재보다 호전될 것으로 전망
- 이는 전문가들이 10월 말~11월 초에 이산가족 상봉 성사와 G20 정상회담 이후 남북 관계가 개선될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

< 2009~2010 전문가평가지수와 기대지수의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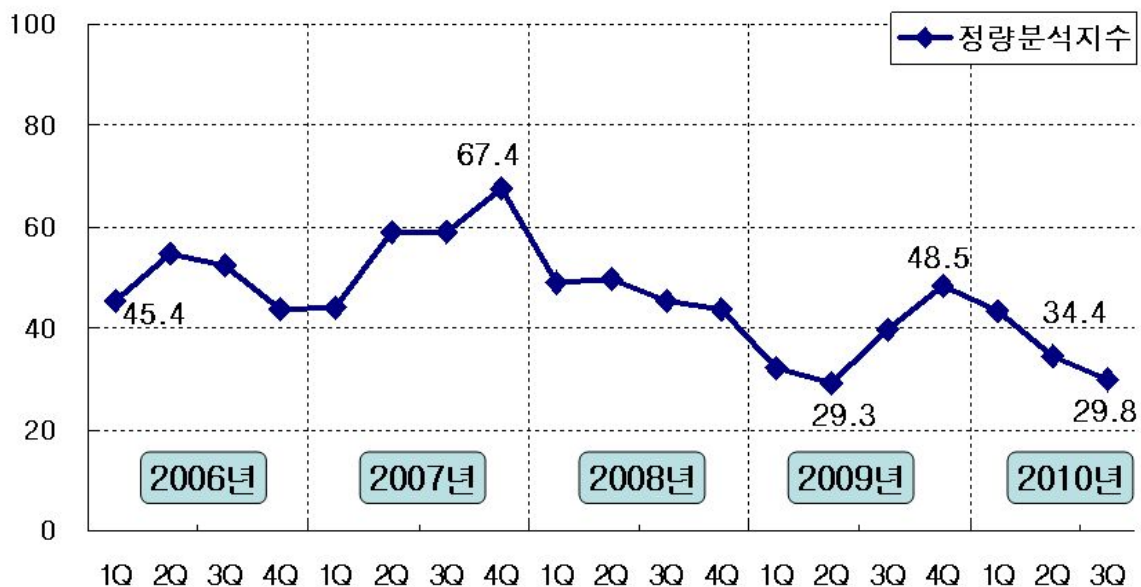


(2) 정량분석지수 (2010년 2분기 : 34.4. → 2010년 3분기 : 29.8)

- 3분기 정량분석지수는 지난 분기의 34.4보다 4.6p 하락한 29.8을 기록함으로써, 남북 관계의 객관적 실적은 악화된 것으로 나타남
 - 정량분석지수는 2009년 4분기 이후 하락세가 지속되어 20p대를 기록함으로써 2차 핵실험이 있었던 2009년 2분기와 비슷한 수준을 나타냄
 - 이는 천안함 사건 이후, 안보리 의장성명 채택과 한미 연합 군사훈련 및 남북 교역 중단 등에 기인한 것으로 평가

- 이번 분기에는 전문가평가지수보다 정량분석지수가 낮게 나타나 남북 교류 실적이 남북 관계에 대한 주관적 평가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임
 - 카터 대통령의 방북, 북한의 6자회담 재개 희망, 이산가족 상봉 합의 및 대북 지원 부분적 재개 등이 전문가들의 긍정적 평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임
 - 그러나 동해와 서해에서의 연이은 한미 연합 군사 훈련과 대북 추가 제재 및 남북 교역의 중단 등이 지속되면서 실적치의 객관적 지표인 정량분석지수는 오히려 하락

< 2006~2010 정량분석지수의 시계열 추이 >



주 : 정량분석지수는 정치·군사 분야의 '이벤트지수'와 경제·사회·인도 분야의 '교류지수'의 평균값을 의미함

(3) 이벤트지수와 교류지수

- 정량분석지수중 교류지수가 이벤트지수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나 경제 및 사회·인도적 관계가 정치·군사적 관계보다 악화된 것으로 평가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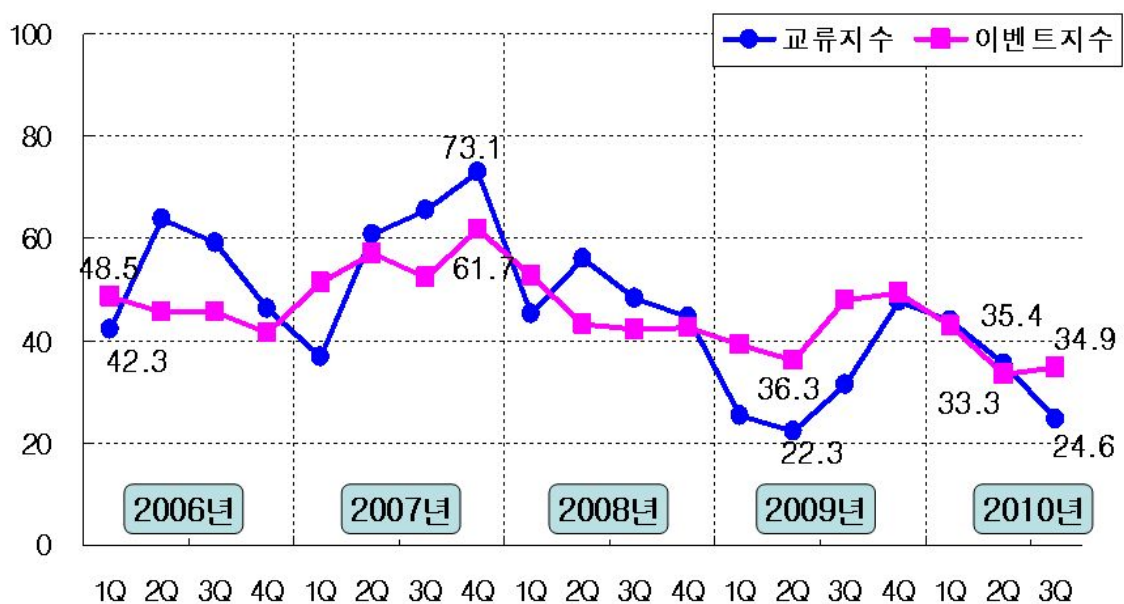
① 이벤트지수 (2010년 2분기 : 33.3 → 2010년 3분기 : 34.9)

- 이벤트지수는 3분기와 비슷한 수준을 기록함으로써 남북 관계는 여전히 천안함 사건의 영향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
- 유엔 안보리 의장 성명 이후 한미 군사훈련 등을 둘러싼 남북 및 미중 간의 갈등이 증폭되었고, 대북 추가 제재가 이뤄짐
- 그러나 카터 전 미 대통령의 방북, 남북 당국자 간 실무 회담 개최, 6자회담 재개를 위한 협의, 정부의 대북 수해 지원 결정 등으로 남북 간 정치·군사적인 관계는 2분기에 비해 약간 호전된 것으로 나타남

② 교류지수 (2010년 2분기 : 35.4 → 2010년 3분기 : 24.6)

- 교류지수가 전기대비 10.8p 하락한 24.6을 기록함으로써 남북 간의 경제 및 사회·인도적 관계는 핵실험이 있었던 2009년 2분기 수준으로 악화
- 5.24 조치로 인해 남북 교역이 중단되고, 신규 사업 승인 불허, 북한 선박 향해 금지조치 등으로 남북 교류 실적이 지난 분기에 비해 크게 감소되었음

< 2006~2010 이벤트지수와 교류지수의 시계열 추이 >



○ (성향별 분석) 대체로 지난 분기에 비해 남북 관계에 대한 평가가 크게 호전되었으며, 보수적 성향의 전문가들의 평가가 좀더 높게 나타남

- 성향별 전문가평가지수는 보수, 중도, 진보 성향이 각각 33.6, 30.3, 29.4로 나타나 서로 4.0p 내의 근소한 차이를 나타냈음
 - 전문가평가지수는 성향을 막론하고 전기대비 20p 내외의 높은 상승세를 기록함으로써, 전문가들은 남북 관계가 지난 분기보다 크게 나아졌다고 평가
- 성향별 특성을 고려하면 보수적 성향의 전문가들이 다른 성향에 비해 대체로 다소 높은 수치를 기록함
 - 이는 보수적 성향의 전문가들이 타전문가들에 비해 천안함 사건 이후 대북 정책과 한미 공조체제 등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
 - 반면 진보적 성향의 경우,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 전환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 한편, 다음 분기 전망에 대한 기대지수 역시, 보수적 성향이 중도 및 진보적 시각보다 높게 나타남
 - 보수적 성향의 기대지수는 46.7이며, 중도 성향은 40.8, 진보적 성향은 38.7을 기록
 - 특히, 기대지수의 증가폭에 있어서 진보적 성향의 기대지수(9.3p 증가)는 중도(18.4p 증가) 및 보수(15.7p) 성향과 큰 격차를 나타냄

< 성향별 전문가평가지수 >

구 분	보수 성향		중도 성향		진보 성향		전문가 평가지수	기대지수	HRI 평화지수
	현재	예상	현재	예상	현재	예상			
'10 3분기	33.6 (▲20.6)	46.7 (▲15.7)	30.3 (▲20.8)	40.8 (▲18.4)	29.4 (▲18.6)	38.7 (▲9.3)	30.4 (▲19.5)	42.0 (▲15.4)	30.1 (▲7.5)
'10 2분기	13.0 (▽6.0)	31.0 (▽0.3)	9.5 (▽4.5)	22.4 (▽8.2)	10.8 (▽5.0)	29.4 (▲0.6)	10.9 (▽5.6)	26.6 (▽3.8)	22.6 (▽7.3)
'10. 1분기	19.0 (▽20.7)	31.3 (▽20.1)	15.0 (▽15.5)	30.6 (▽24.0)	15.8 (▽13.9)	28.8 (▽20.0)	16.5 (▽17.0)	30.4 (▽20.4)	29.9 (▽11.1)
'09. 4분기	39.7 (▽10.5)	51.4 (▽6.2)	30.5 (▽7.6)	54.6 (▲0.2)	29.7 (▽8.1)	46.8 (▽4.9)	33.5 (▽7.0)	50.8 (▽3.0)	41.0 (▲0.8)
'09. 3분기	50.2	57.6	38.1	54.4	37.8	51.7	40.5	53.8	40.2

2. 남북 관계 현안 설문조사

○ (대북정책 방향)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6자회담 재개와 천안함 사건 해결을 분리추진하거나 천안함 사건과 관계없이 남북 관계 개선 모색을 주문

- 전체 70명의 전문가 중 71.0%가 향후 대북정책 추진시 6자회담 재개와 천안함 사건 해결을 분리하는 투트랙 접근을 추진해야 한다고 응답
- 또한 13.0%는 '천안함 사건과 관계없이 남북 관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응답
- 그러나 '북한이 사과하기 전까지 강경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응답한 사람은 15.9%에 불과

대북정책 방향	비중
천안함 사건 해결과 6자회담 재개 별도 추진	71.0%
북한이 사과하기 전까지 강경기조 유지	15.9%
천안함 사건과 관계없이 남북 관계 개선 모색	13.0%

○ (대북 쌀지원) 다수의 전문가들은 정부와 민간 차원에서 북한에 대한 쌀 지원을 지속해야 한다고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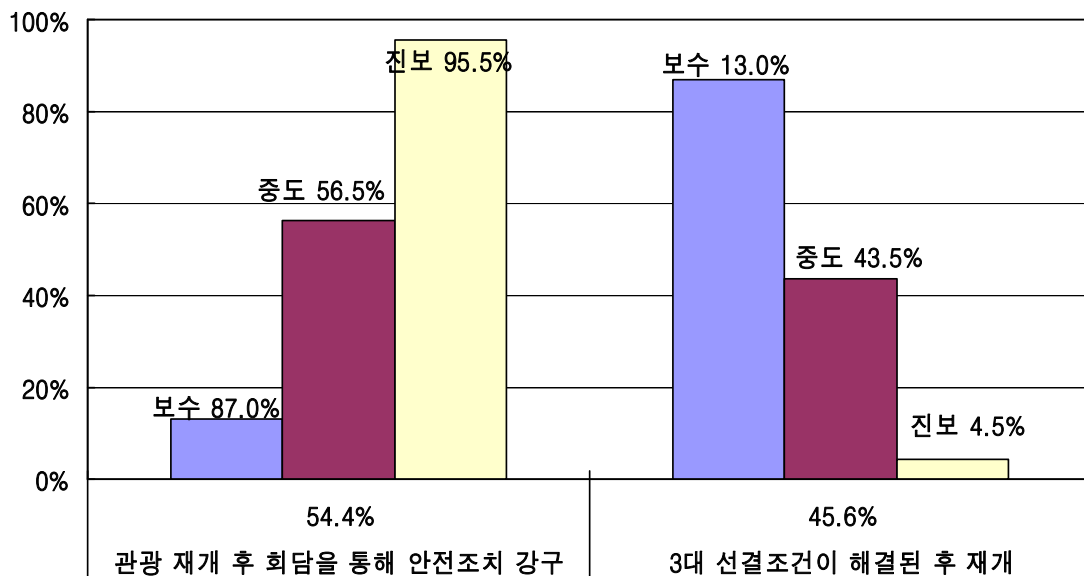
- 전체 68.1%의 전문가들이 정부 차원의 쌀지원 확대에 대해 찬성하였으며, '북한의 태도변화가 없는 한 곤란하다'는 응답은 31.9%를 차지
- 한편, 민간차원에서의 쌀지원은 전체 92.8%가 '굳이 막을 필요가 없다'는 응답을 하였고, 북한의 태도 변화가 전제돼야 한다는 응답은 7.2%에 불과

대북 쌀지원			
정부 차원	비중	민간 차원	비중
대북 쌀지원을 지속해야	68.1%	굳이 막을 필요가 없다	92.8%
북한의 태도변화가 없는한 곤란	31.9%	북한의 태도 변화 전제해야	7.2%

○ (금강산 관광 재개) 일단 금강산 관광을 재개한 후, 회담을 통해 안전조치를 강구해야 한다는 응답이 좀 더 많았음

- 전체 54.4%의 전문가들은 이번 기회에 금강산 관광을 조속히 재개하고 당국 자간 회담을 통해 재발방지 등의 안전조치를 강구해도 된다고 응답
 - 반면, 45.6%는 정부가 제시한 3대 선결조건(진상규명, 재발방지, 신변안전보장)이 해결된 후에 재개해야 한다고 응답
- 특히, 전문가들의 성향에 따라 금강산 관광 재개에 대한 입장이 뚜렷하게 나뉘어지는 것으로 나타남
 - 보수 성향의 전문가 중 87.0%는 3대 선결조건 해결을 우선하는 입장을 지지한 반면, 13.0%만이 관광의 우선 재개를 찬성하였음
 - 중도 성향의 전문가들 43.5%가 3대 선결조건 해결을 지지하였고, 56.5%가 관광 우선 재개를 지지하였음
 - 진보 성향의 전문가 중 4.5%만이 3대 선결조건 해결을 지지한 반면, 절대다수인 95.5%는 금강산 관광을 우선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

< 금강산 관광 재개에 대한 평가 >



○ (북한 후계 체제 전망) 다수의 전문가들은 당분간은 안정을 유지하나, 김정일 위원장 유고시 불안에 빠질 것으로 전망

- 전체 63.8%의 전문가들은 3대 세습 체제가 '당분간 안정되나, 김정일 위원장의 유고시 곧 불안에 빠질 것이다'라고 응답
- '다소 어려움이 있으나 점차 후계체제가 안착될 것이다'라는 응답은 31.9%를 차지하였고, '조기에 안착될 것이다'라는 응답은 4.3%를 차지

○ (북한 정책 기조 전망)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북한 후계체제가 안착되면 대외 및 경제정책의 변화없이 현재의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응답

- 전체 40.6%의 전문가들은 후계체제가 안정적으로 구축될 경우, 대외 정책 및 경제 정책이 현재의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
- '대외적으로 유화, 경제적으로 개혁·개방을 추진할 것이다'라는 응답은 26.1%를 차지하였고, '대외적으로 강경, 경제적으로는 개혁·개방을 추진할 것이다'라는 응답은 20.3%를 차지하였음
- 대외 강경과 경제 개혁·개방(20.3%)은 한·미 등 서방 세계에 대해서는 강경입장을 유지하면서도 중국식 개혁·개방을 추진해 나갈 것으로 해석
- 한편, 전문가들은 북한 후계구도가 안착될 경우, 향후 북한의 대외 정책과 개혁·개방 전망에 대해 긍정적으로 응답
- 후계체제가 안착되면 개혁·개방을 확대(46.4%)할 것이란 전망이 개혁·개방 후퇴(13.0%)보다 많았음
- 또한 대외 유화적 입장(33.3%)이 대외 강경 입장(26.1%)을 다소 상회

북한 대외 정책과 경제 정책 전망	비중
정책 변화없이 현기조 유지	40.6%
대외적으로 유화적, 경제적으로 개혁·개방 확대	26.1%
대외적으로 강경, 경제적으로 개혁·개방 확대	20.3%
대외적으로 유화 경제적으로 개혁·개방 후퇴	7.2%
대외적으로 강경, 경제적으로 개혁·개방 후퇴	5.8%

○ (북한 대중의존도 심화) 다수의 전문가들은 북한의 대중 의존도 심화가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의 양면성을 갖고 있다고 평가

- 70명의 전문가 중 78.3%가 북한의 중국 의존 현상에 대해서 긍정적인 효과도 있고, 부정적인 효과도 있다고 응답
- 17.4%의 전문가들은 대중의존도 심화가 북한 경제의 중국 편입과 동북4성화 등 부정적이 측면이 더욱 크다고 응답
- 반면, 북한의 개혁 개방과 자본주의 확산 등 긍정적인 측면이 더 크다고 응답한 사람은 4.3%에 불과

○ (통일의 형태) 남북이 하나되는 완전한 통일을 가장 선호

- 남북이 하나되는 완전한 통일을 원한다는 답변의 비중이 지난 분기에 비해 14% 상승한 39.3%로 가장 다수를 차지함
- 반면 1국가 2체제의 평화공존을 원한다는 응답과 자유로운 왕래 수준을 원한다는 답변은 각각 36.1%, 23.0%로 지난해에 비해 감소
- 13.0%를 차지한 기타 응답 가운데 대부분은 '1국가 2체제 → 완전한 통일'의 단계적인 통일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남

어떤 수준의 통일을 원하십니까?	2010	2009
남북이 하나되는 완전한 통일	34.8%	25.0%
1국가 2체제의 평화공존	31.9%	39.8%
자유로운 왕래 수준	20.3%	29.5%
현 상태도 괜찮다	0%	2.3%
기타	13.0%	2.4%

주 : 2009년은 12월 14일~18일에 시행한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임

○ (통일의 예상 시기)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11년 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응답

- 전체 62.3%의 다수의 전문가들은 '11년 이상 걸릴 것이다'라고 응답하였고, 6~10년은 27.5%, 5년 이내는 8.7%를 차지하였음
- 지난해와 비교할 때 '5년 이내 가능하다'라는 응답이 크게 증가한 반면, '11년 이상 걸릴 것이다'라는 응답은 감소

통일은 언제 가능할까요?	2010	2009
11년 이상	62.3%	70.5%
6~10년	27.5%	26.1%
5년 이내	8.7%	0%
불가능하다	1.4%	3.4%

주 : 위와 동일

○ **(통일 비용 부담)** 연간 51만원 이상 부담하겠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연간 11~20만원 이상 부담자들이 크게 증가

- 전체 32.9%의 전문가들이 '51만원 이상'을 선택하여 가장 다수를 차지하였고, 그 중에 '51~100만원 이하' 또는 '100만원 초과'를 부담하겠다는 전문가는 각각 20.0%, 12.9%로 나타남
- 지난해와 비교하여 통일 비용 부담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증가
 - 연간 11~20만원 이하 부담하겠다는 응답자는 10.4% 증가한 반면, 10만원 이하 부담하겠다는 응답자는 9.5%감소
 - 이는 8·15 경축사에서 제기된 통일세 도입 제안으로 통일비용에 대한 전문가들의 관심과 인식이 제고된 데 따른 것으로 해석

어느 정도의 비용을 지불할 용의가 있나요?		2010	2009
연간 51만원 이상	51~100만원 이하	20.0%	32.9%
	100만원 초과	12.9%	
연간 21~50만원 이하		12.9%	14.8%
연간 11~20만원 이하		28.6%	18.2%
연간 2~10만원 이하		20.0%	29.5%
연간 1만원 이하		4.3%	1.1%
부담하고 싶지 않다		1.4%	4.5%

주 : 1) 지난해의 경우 '51만원 이상을 부담'을 하나의 문항으로 설문하였으나 올해는 '51~100만원 이하 부담' 과 '100만원 초과 부담'의 2개의 문항으로 나누었다
 2) 2009년은 12월 14~18일에 시행한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최성근 선임연구원 (2072-6223, csk01@hri.co.kr)

< 부록 1 > HRI 한반도 평화지수(HRI Peace Index)의 개요

- 한반도 평화지수란 남북 관계를 중심으로 한반도의 전체적인 평화의 정도를 계량화된 수치로써 나타낸 지수임
- HRI 한반도 평화지수는 주관적 분석 방법론과 객관적 분석 방법론을 종합하여 분석한 통합지수이며, '전문가평가지수'와 '정량분석지수'로 구성
 - 전문가평가지수는 관련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분기별 설문 조사를 통해 산출되며, 다음 분기에 대한 전망치를 바탕으로 '기대지수'도 측정
 - 정량분석지수는 정치·군사 영역의 '이벤트 지수' 사회·문화·인도적 영역의 '교류지수'로 구성됨
- 지수의 범위를 0에서 100으로 설계하였으며 50을 기준으로 0은 남북한의 전시 상태를, 100은 가장 평화로운 상태를 의미함¹⁾

< HRI 한반도 평화지수와 관계 범주 >

관계 범주	내용	지수 범위
평화·공영 상태	남북 간 신뢰가 구축되고 평화 공존 및 남북 평화체제가 서서히 수립되는 상태	80이상
우호적 협력 상태	남북 간의 교류 협력이 활발하게 진행되는 상태	60~80미만
협력·대립의 공존 상태	남북 간의 대화와 갈등이 교차되는 상태	40~60미만
긴장 고조 상태	남북 간 긴장이 고조되어 상대방에 대한 실제적인 위협 혹은 갈등이 발생하는 상태	20~40미만
전시·준전시 상태	핵위기가 고조되거나 군사적 충돌이 심화되어 전면전으로 치달는 상태	20이하

1) 제시된 관계 범주는 산출된 HRI 한반도 평화지수의 크기에 따라 남북 관계 및 한반도의 평화의 정도가 현재 혹은 향후 대체로 어떠한지를 판단하기 위해 만든 참고자료이다. 따라서 HRI 한반도 평화지수를 구성하는 세부지수들을 이 범주에 그대로 적용하여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 부록 2 > 교류지수 주요 변수

< 교류지수 주요 변수 구성 >

구분	중분류	변수
경 제 (6개 변수)	남북 교역	남북한 교역액
		경제 협력액
	협력 사업	협력사업 승인 수
		경제교류협력지원
	관광	금강산 관광객
		개성 관광객
사 회 · 문 화 · 인 도 (8개 변수)	왕래	방남 인원
		방북 인원
	이산가족	이산가족 상봉 수
		이산가족교류지원
	사회문화협력	사회문화협력사업 승인 수
		사회문화협력지원
	인도적 지원	대북지원 (정부)
		대북지원 (민간)

- 주: 1) 남북한 교역액은 일반 교역과 위탁 가공으로 구성
 2) 경제 협력액은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그리고 기타 경제 협력액으로 구성
 3) 경제교류 협력기금은 경제 분야의 교류협력기반 조성액과 남북교류협력지원 용자액으로 구성

< 부록 3 > 남북 관계 전문가 설문 조사

1. 조사 개요

- (목적) HRI 한반도 평화지수의 전문가 평가지수 산출을 위하여 지난 3개월 및 향후 3개월의 남북관계 진단 및 전망

- (조사 시기) 2010년 10월 7일 ~ 10월 13일 (6日), 총 응답자 70명

2. 조사 내용

□ 남북 관계 분석 및 전망

1. 정치·군사 관계

1-1) 남북 당국자 간 정치적인 신뢰 관계가 좋아졌다

항 목	3분기(%)	2분기(%)
1. 매우 그렇지 않다	26.1	69.3
2. 그렇지 않다	40.6	30.7
3. 보통이다	24.6	0
4. 그렇다	8.7	0
5. 매우 그렇다	0	0
계	100.0	100.0

1-2) 남북한 간의 군사적인 긴장이 완화되었다

항 목	3분기(%)	2분기(%)
1. 매우 그렇지 않다	20.3	62.7
2. 그렇지 않다	46.4	37.3
3. 보통이다	18.8	0
4. 그렇다	14.5	0
5. 매우 그렇다	0	0
계	100.0	100.0

1-3) 북한의 대외관계 및 국제사회에서의 입지가 나아지고 있다

항 목	3분기(%)	2분기(%)
1. 매우 그렇지 않다	20.3	25.3
2. 그렇지 않다	44.9	68.0
3. 보통이다	24.6	6.7
4. 그렇다	10.1	0
5. 매우 그렇다	0	0
계	100.0	100.0

1-4) 북한의 내부 통치 체제가 안정화되고 있다

항 목	3분기(%)	2분기(%)
1. 매우 그렇지 않다	7.2	8.0
2. 그렇지 않다	27.5	49.3
3. 보통이다	33.3	34.7
4. 그렇다	30.4	8.0
5. 매우 그렇다	1.4	0
계	100.0	100.0

1-5) (종합) 전반적으로 남북간 정치·군사적인 관계가 좋아졌다

항 목	3분기(%)	2분기(%)
1. 매우 그렇지 않다	20.3	60.0
2. 그렇지 않다	47.8	38.7
3. 보통이다	24.6	1.3
4. 그렇다	7.2	0
5. 매우 그렇다	0	0
계	100.0	100.0

1-6) (전망) 남북간 정치·군사적 관계는 현재보다 좋아질 것 같다

항 목	3분기(%)	2분기(%)
1. 매우 그렇지 않다	2.9	17.3
2. 그렇지 않다	37.7	57.3
3. 보통이다	36.2	22.7
4. 그렇다	20.3	2.7
5. 매우 그렇다	0	0
6. 잘 모르겠다	2.9	0
계	100.0	100.0

2. 경제적 관계

2-1) 남북 간의 경제적 교류가 확대되었다

항 목	3분기(%)	2분기(%)
1. 매우 그렇지 않다	21.7	61.3
2. 그렇지 않다	47.8	37.3
3. 보통이다	27.5	1.3
4. 그렇다	2.9	0
5. 매우 그렇다	0	0
계	100.0	100.0

2-2) 남북 경제협력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증대되었다

항 목	3분기(%)	2분기(%)
1. 매우 그렇지 않다	0	25.3
2. 그렇지 않다	23.2	36.0
3. 보통이다	37.7	18.7
4. 그렇다	34.8	17.3
5. 매우 그렇다	4.3	2.7
계	100.0	100.0

2-3) 북한 경제의 개방이 점차 확대되었다

항 목	3분기(%)	2분기(%)
1. 매우 그렇지 않다	15.9	21.3
2. 그렇지 않다	44.9	49.3
3. 보통이다	31.9	25.3
4. 그렇다	5.8	4.0
5. 매우 그렇다	0	0
6. 잘 모르겠다	1.4	0
계		100.0

2-4) 북한 내부의 경제 사정이 점차 개선되고 있다

항 목	3분기(%)	2분기(%)
1. 매우 그렇지 않다	23.2	22.7
2. 그렇지 않다	40.6	56.0
3. 보통이다	31.9	18.7
4. 그렇다	2.	2.7
5. 매우 그렇다	0	0
6. 잘 모르겠다	1.4	0
계	100.0	100.0

2-5) (종합) 전반적으로 남북 간 경제적인 관계가 좋아졌다

항 목	3분기(%)	2분기(%)
1. 매우 그렇지 않다	21.7	53.3
2. 그렇지 않다	49.3	44.0
3. 보통이다	24.6	2.7
4. 그렇다	4.3	0
5. 매우 그렇다	0	0
계	100.0	100.0

2-6) (전망) 남북 간 경제적인 관계는 현재보다 좋아질 것 같다

항 목	3분기(%)	2분기(%)
1. 매우 그렇지 않다	4.3	24.0
2. 그렇지 않다	37.7	53.3
3. 보통이다	37.7	20.0
4. 그렇다	17.4	2.7
5. 매우 그렇다	0	0
6. 잘 모르겠다	2.9	0
계	100.0	100.0

3. 사회·문화·인도적인 관계

3-1) 남북 간 사회문화 교류(문화, 체육 및 이산가족 상봉 등)가 활발해졌다

항 목	3분기(%)	2분기(%)
1. 매우 그렇지 않다	13.0	68.0
2. 그렇지 않다	42.0	32.0
3. 보통이다	29.0	0
4. 그렇다	15.9	0
5. 매우 그렇다	0	0
계	100.0	100.0

3-2) 북한에 대한 우리 국민의 신뢰가 높아졌다
(2분기 : 통일에 대한 우리 국민의 관심이 높아졌다)

항 목	3분기(%)	2분기(%)
1. 매우 그렇지 않다	36.2	18.7
2. 그렇지 않다	36.2	54.7
3. 보통이다	27.5	16.0
4. 그렇다	0	10.7
5. 매우 그렇다	0	0
계	100.0	100.0

3-3) 정부의 대북 인도적 지원이 증대되었다

항 목	3분기(%)	2분기(%)
1. 매우 그렇지 않다	11.6	53.3
2. 그렇지 않다	26.1	36.0
3. 보통이다	43.5	10.7
4. 그렇다	18.8	0
5. 매우 그렇다	0	0
계	100.0	100.0

3-4) (종합) 전반적으로 남북 간 사회·문화·인도적인 관계가 좋아졌다

항 목	3분기(%)	2분기(%)
1. 매우 그렇지 않다	11.6	62.7
2. 그렇지 않다	49.3	36.0
3. 보통이다	29.0	1.3
4. 그렇다	10.1	0
5. 매우 그렇다	0	0
계	100.0	100.0

3-5) (전망) 남북 간 사회·문화·인도적 관계는 현재보다 좋아질 것 같다

항 목	3분기(%)	2분기(%)
1. 매우 그렇지 않다	2.9	24.0
2. 그렇지 않다	36.2	53.3
3. 보통이다	34.8	18.7
4. 그렇다	24.6	4.0
5. 매우 그렇다	0	0
6. 잘 모르겠다	1.4	0
계	100.0	100.0